

월간 **충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78 **11** 월호

감사하는 믿음

세상에는 두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육신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과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또한 세상에는 신세를 지고 그것을 보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눅17장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는데 마침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한촌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문둥병자 열명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 "예수 선생님이여" 하면서 소리를 높여 자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 문둥병을 낫게 하여 주시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후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눅17:17에서 "열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 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할 때 바로 이 아홉 문둥이와 같은 감사를 모르는 인생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시44편 8절에 보면 우리 믿는 성도가 종일 힘써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성도가 종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는 것 곧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성도가 종일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한다고 하는 말을 스퍼전(Spurgeon)목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영영토록 무궁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번째 편지에서 성도는 마땅히 법사에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하였다(살전 5:18)

법사에 감사하라 종일토록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대로 생활(실천)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닌줄 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볼때 우리의 생활이 증명하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신앙과 행위의 문제이다.

하루의 일과를 끝마치고 잠자리에 들기전 한날의 생활을 반성해 보며 정리해 보는 순간이 우리에게 그 누구에게나 있다. 그 순간에 한날을 돌아보며 시간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계(accounting)하여 볼때 솔직히 말하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

을 자랑하며 그 이름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부끄러움을 금치 못할 때가 한두번이 아님을 고백하게 된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늘 참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생각할 때 자신의 부족과 죄를 회개하면서 감사하게 된다.

금년도 어언 11월로 접어들었다. 지나간 열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과거로 사라져가고 있다 생각하여 보면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많을 줄 안다.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은총과 축복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망극하다.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또한 넘치는 것이다. 우리 중현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지 25주년을 맞이한 금년 하나님께서 우리교회를 향하여 베푸신 축복이 무한하리만치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예를 일일이 열거하기가 지면이 너무나 부족하리라.

지난 6월 초하룻날 경기도 광주군 중현동산에서 우리는 중현기도원 봉헌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무한히 감사하였다. 그리고 금년도 7월과 8월에 걸쳐 12부 주일학교의 거의 모든 부서가 그곳에서 하기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또 한가지 크게 감사한 일은 십년 가까이 기도으로 준비하며 고대하던 새성전 건축의 문이 금년 들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5월 25일 논현동 현지에서 역사적인 기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점이다. 6천여명의 대지 위에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들이어서 그모습을 나타내기를 바라며 이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게 될을 감사한다.

그외에도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다. 지난 춘계 성례식때와 금번 추계성례식을 통하여 900명 가까운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고 혹은 학습, 혹은 유아세례 혹은 입교를 하게 됨을 또한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크나큰 행사였던 것이다.

그리고 지난 4월달에 있었던 제1회 중현선교대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개최하게 하시고 또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심을 다시금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앞으로 영영토록 내려주시는 무궁한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늘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크신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주간)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11월의 행사

- 11/5 정기 제직회
 11/10 교회 철야기도회(충현기도원에서)
 11/9-10 청소년초청전도집회(고등부 주최)
 11/12 장로투표(공동의회)
 남전도회·권사회·산업전도회 월례회, 청년부
 헌신예배
 11/14 김창인목사 설교집 제1권 간행
 11/19 월간충현 11월호 발행, 여전도회 월례회, 재정
 위원회 월례회
 11/23-25 대학부 세미나
 11/26 구역권찰회·전도위원회 월례회, 청년부 세미나
 중등부 헌신예배
 11/28 정기 당회

제 6 권 제 59 호

11월호 차례

<권두언> 감사하는 믿음/주간	2
<이달의 말씀> 참 복된 잔치만 합시다 /김창인목사	4
<이렇게 답한다> 제사와 효도/김재창목사	6
<특집 I> 기독교인의 결혼관/김희보목사	7
<특집 II> 감사절 · 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윤형철강도사	10
· 개구멍과 감사/이사례권사	11
<특별기고> 세속주의 비판/김차생장로	12
<도서정보> 새로 구입한 책, 도서실 소식	13
<1200자 칼럼> 최소한의 예의/고제원 집사	14
<찬송가 감상 ⑨> 선한 싸움 위해 /김중석강도사	14
<해외선교 소식> 인도네시아와 홍콩	15
<독자의 글> · 잘못 배달된 것 우편물 갈아 /김연이	16
· 나는 할 수 있다/김종주	17
· 강변기행(江邊紀行)/원용규	17
<이달에 만난 사람> 한영철·정기성 목사	18
<주간에 만나> 시편에서	20
<구역소식>	21
<구역장 노우트 ④> 구역장 특별수련 자료(1) /백성룡 목사	21
<구역공과> 창세기 공부	22
<교회소식>	24
<광고·편집후기>	26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27
<실로암 못가에서>	28

월간 충현

충현교회 3대 목표

우리는 정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참 복된 잔치만 합시다

성경/마 14:13-21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사람이 세상에 살아 가는 동안에 대회도 예식도 잔치도 많읍니다. 특히 어떤 즐거운 일을 만나서 그 일을 가록끼리 혹은 친척끼리 혹은 이웃 사람들까지 청하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가르쳐 잔치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 이름의 잔치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복인 줄 압니다. 그러면 잔치를 어떻게 하여야 아름답고 깨끗하고 행복되게 하겠읍니까?

첫째로 목적이 아름다운 잔치라야 되겠읍니다. 둘째로 주관하는 분이 올바르게 잔치를 주관해야 되겠읍니다. 세째로 진행되는 순서가 질서있고 깨끗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합니다. 네째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올바른 신분을 지켜야만 되겠읍니다.

이 네가지 잔치를 성경을 통하여 실례를 들어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솔로몬의 잔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여 기브온에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읍니다.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내게 바친 제사를 잘 받았다. 내가 네게 복을 주마!" 하시는 응답을 받고 너무 좋아 만조백관 신하들을 모아 놓고 잔치를 하였읍니다.

이 솔로몬이 베푼 잔치의 내용은 첫째로 충만한 감사 속에서 잔치를 합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가지 은혜 받은 것을 감사했읍니다. 둘째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야,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다. 얼마나 기쁘나!" 세째로 바르게 살기로 결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더 큰 복을 주시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런 아름다운 결심을 하기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읍니다.

솔로몬이 잔치를 베푼 결과는, 첫째로 나라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없어졌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물질면에서 한없이신 복을 주셨읍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읍니다. 세째로 솔로몬의 영광과 권위가 세계를 떨쳤읍니다. 세계를 앞서서 정복하였고 권위와 명예가 천하에 진동했읍니다.

잔치를 바로하면 복을 받읍니다.

2. 벨사살의 잔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바벨론나라 임금 벨사살 왕의 잔치가 소개됩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푼 시기는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해서 바벨론과 전쟁할 때였읍니다. 이때에 벨사살 왕은 아버지 나브나이드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셨는데 아들로써 근신하며 군대를 잘 돌보아야 할텐데 오히려 교만하여 "먹고 마시며 놀자!" 하며 밤낮 놀고 잔치만 베풀었읍니다.

무서운 교만으로 시기를 모르는 잔치를 계속하다가 하루는 교만한 마음이 극도에 달하여 성전의 은그릇과 금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자기가 섬기는 나무로 만든 귀신, 쇠로 만든 귀신, 은금으로 만든 귀신을 최고라고 자기의 우상을 찬양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손가락 하나가 왕이 앉은 맞은편 바람벽에 나타나더니 움직이면서 이상한 글을 씁니다. 이것을 보던 벨사살 왕은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얼굴빛이 변하고 두 무릎은 부들부들 떨고있었읍니다. 손가락은 없어지고 글만 남았읍니다.

얼마 후, 벨사살 왕은 고향을 지르면서 "바벨론의 유명한 박사들아, 점장이들아, 저것이 무슨 글인지 읽어라, 해석하라! 해석하는 자에게는 국무총리로 삼겠다!"고 칙령을 내렸읍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어두워진 양심의 인간들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의 글자를 읽겠읍니까. 이때에 태후가 들어와 느브갓네살 왕의 포로 중의 한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즉시 다니엘을 데려오게 했읍니다.

"네가 이 글을 읽을 수 있나?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나? 그러면 그대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고 국무총리로 삼아 주마."

"임금님 상급은 단 사람에게 주십시오. 저는 상급과는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서 이 글을 해석하겠습니다. 이 글은 '메베 메베 메겔 우바루신'입니다. 메베 메베란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의 역사를 오늘로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뭐야?"

"'메겔'이란 글의 뜻은 하나님이 임금님을 저울에 달아 보시고 왕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바루신'이란 말은 오늘 저녁으로 이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 나누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바로 그날 밤, 바벨론 성문이 열려 다리오 왕이

거느린 메대 군대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벨사살 왕의 목을 끊었습니다. 문명국으로 강대국으로 뿔내던 바벨론나라 역사는 하루 저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시기를 모르는 잔치는 저주를 불러들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잔치는 징계를 받고 우상을 찬양하는 어리석은 잔치는 망신을 당한다는 사실을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라를, 자신을 잊어버리는 잔치를 하지 맙시다.

3. 헤롯의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에 헤롯 임금의 생일잔치는 궁궐에서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베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특별순서로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었는데, 그 춤이 헤롯 왕을 즐겁게 하여 춤에 대한 상급을 주기로 하였을 때 헤로디아는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기를 바라서 그렇게 해 주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헤롯 왕의 잔치의 결과는 악한 자들이 아침하는 잔치요, 악독한 여인의 더러운 특별순서가 대환영을 받는 잔치요, 외인을 죽이고 저주를 안기는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런 잔치를 너무 많이보고 안타까와합니다. 훌륭하다는 분들이, 부자들이, 큰 잔치를 할 때 더러운 여자들이 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 10만원 20만원씩 선뜻 준다는 말을 듣고 "헤롯 왕의 궁궐 잔치와 꼭 같구나. 더러운 여자들의 특별순서가 환영을 받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못하며 10만원 20만원을 풀소듯 주는 너희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반역자로구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잔치는 공산당보다도 더 악독한 잔치입니다.

4.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를 생각합시다

장소는 뱃새다 빈들이고 모인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사람들을 굶겨서 보내던 길에서 피곤할까봐 사랑과 긍휼로 베푸신 잔치입니다. 잔치의 재료는 한 어린 소년의 점심값인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뿐인 약소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잔치의 순서는 내게 있는 것인 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예수님께 바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떡과 물고기를 받으신 예수님은 질서있게 50명씩 앉히시고 기도로 진행하셔서 기도후 떡을 메시어 열두 제자에게 주시니 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구주여 해변서 떡덩이를 메시어 인민을 먹였으니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그같이 나누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떡을 메시어 여러분에게 나눠주시는 시간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더니 남자 어른만 5천여명이 배가 부르도록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 한 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5천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를 남기시는 분이시던

서도 조그만 부스러기 하나를 버리지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배워야 합니다.

지극히 적은 것을 아끼는 사람은 많은 것을 남에게 줍니다. 지극히 적은 것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얻어먹다 굶어 죽습니다. 물질함부로 허비하지 맙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모인 무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둘째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믿음이 생겨 믿음으로 바로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세째로 기쁨이 생겼습니다. 만족하여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는데 피곤하지 않고 힘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결과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생을 사시는 동안 생일잔치, 아들딸의 결혼식, 박사학위를 받고 축하식, 집짓고 낙성식 등 어떤 잔치를 하시든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내게 물질 주시고, 세 집 주시고, 박사학위 받도록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잔치를 가집니다. 우리는 잔치가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가정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잔치를 합시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순서를 진행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잔치든지 기도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더러운 순서를 섞지 말고 예수님의 교훈대로 진행합니다. 세째로 분수님은 일은 하지 맙시다. 잔치를 자기생활 정도를 넘지 말고 형편에 맞게 합시다. 네째로 우리는 잔치를 할 때마다 오늘의 잔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앞으로 더 큰 잔치를 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바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땅위의 잔치를 바로하면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며 땅위에서 살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의 본이 되는 잔치를 하면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잔치! 자기의 신분과 분수를 지키는 잔치!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진행되는 잔치! 하나님의 은혜받은 종들을 청해서 질서있게 순서를 진행하는 잔치를 빼놓아서 피차간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니 믿는 사람에게 옳다 하는 칭찬을 듣고,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고,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매주일 3부예배 실황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아세아방송 1570kHz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제사와 효도

김 재 창 목사

<부목사·노년부 지도>

물음/부모의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요? 산소에 가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1. 제사는 효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부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것인양 생각했던 것은 큰 잘못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제사는 이방종교의 산물이며 허해허식입니다. 성경적인 것도 아니며 신앙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노여움을 사는 무서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고전 10:20~22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곁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사 106:28~29 “저희가 또 바알보울과 연합하여 죽은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격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중에 유행하였도다”

2. 참된 효도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불순종하며 허방방탕하닉 부모님의 마음을 애태우며 간장을 녹게 하던 불효막심한 사람이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천하에 돌도 없는 큰 효자나 되는 것처럼 성대한 장례식을 거행하고 웅장한 빈소를 만들어 놓고 굉장한 제삿상을 차린다면 그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마음을 기쁘게 하여 드리고 몸을 편하게 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명배 한마리나 과일 하나라도 정성껏 매접하는 것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돼지나 소를 잡아 장례하고 제사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상을 물라보는 불효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산 효도의 표본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삽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 20:12, 엠 6:1~3)” “아버이 살아실 일제 섬길 일을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 뿐인가 하노라(송강 정철) 기독교의 효도는 산 효도요 이방인의 제사는 죽은 효도입니다.



3. 고인의 기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날을 기념하여 고인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목적은 첫째로 고인의 빛나는 업적과 유덕을 생각하고 둘째는 고인의 평소의 교훈과 유훈을 되새겨보며 그대로 살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째는 고인의 유덕과 그 유훈에 합당한 생활을 하였는가 반성하여 보고 불효한 죄가 발견되는 대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째는 남은 여생을 앞서 가신 어른의 그 사랑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 것을 결심해야 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우리의 결심이 아무리 비장해도 실천에 옮기기에는 세상이 너무도 악하고 실천력이 모자라는 자신임을 자각하는 동시에 주님의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합심간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꼭 조심해야 할 것은 주일을 피할 일입니다. 기일이 비록 주일에 해당되는 때에라도 추모에 배 드리는 일과 충현동산이나 혹은 다른 곳이라도 묘소를 찾는 일은 다른날에 하시기를 바라고 혹 안되는 가족 중이라도 음식을 묘소 앞에 차려놓는 일이나 절하는 일은 일제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묘소 앞에서나 추모예배시에 또는 상가에 문상갔을 때는 마음으로 하든지 입을 열어 하든지 모든 기도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며 다만 고인의 업적을 기념하는 일과 믿음의 생애를 계승하여 후대가 더 창성하기 위하여 복을 빌어 주시고 불효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과 소망으로 곧 세계 살 것을 엄숙히 기도하고 산 효도의 실천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보다 훌륭한 조상이 되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필수조건

김 회 보 목사

<총회신학대학장>



결혼의 조건으로 「순결성」과 「애정」은 필요불가결하다고 강조하는 김회보 목사님.

◇ 이 글은 청년부에서의 「성도의 결혼관」에 관한 특강을 본 편집실에서 요약·정리한 것이다.

성교는 많이 했으나 결혼에 대한 특별한 강의는 해 본 일이 없고 판단적인 지식은 갖고 있다. 판단적인 지식과 경험을 종합해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으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내가 결혼할 당시는 연애결혼은 생각지도 못하고 「남녀칠세부동석」은 아니었으나 부부끼리도 같이 다니지 못하던 때였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다닌다는건 생각조차 못했고 남자가 저기 가면 여자는 이만큼 떨어져 가야 하는 그러한 풍토 속에서 자라났다. 어려서부터 교회생활은 했지만 여자와 교제할 기회라고는 거의 없었다.

내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은 15살때 누막염이 걸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결혼을 했다. 누막염이 심해져 폐까지 침범을 당해 폐결핵까지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나아 이렇게 껴떡없이 일을 하고 있다. 그때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 원장의 딸이 내 아내가 되었다. 그러니 병 앓은 것이 소복이 되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 의사가 나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고 그 의사 사모님까지도 불쌍하다고 과일도 짹아 주곤 하다가 내가 대학을 졸업한후 어떻게 인연이 되어 결혼을 했다. 그래서 연애결혼이 아니고 이상한 인연으로 결혼을 했다. 연애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지금 재미있게 잘 살고 있기에 중매결혼도 좋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과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보전대 결혼의 필요조건이 무엇이겠는가에 대해 두가지만 말하려고 한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했는데 여기서도 결혼의 필수조

건이 무엇이겠는가?를 서너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가지만 생각해 보겠다.

1. 순결성

결혼의 필수조건의 첫째는 1남 1녀의 순결성이다 이것이 크리스찬인 우리들의 가정과 기독교인의 결혼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순결성은 성경에서도 1부 1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의 우리사회는 일부다처의 생활은 하지 않지만 도덕적·정신적인 면에서 일부다처(一夫多妻)뿐 아니라 일처다부(一妻多夫)까지 있는 것 같다. 도덕적인 면에서의 부패로 인한 일부다처가 믿는 가정에까지 침투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부 1처의 정신을 철저히 주장하여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성경이 말하는 일부일처의 순결성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간음을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간음으로 말씀하셨으니 형식적으로 일부다처가 아닌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도 간음을 하지 않는 순결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부 1처의 정신은 심리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매우 좋다고 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부다처의 사회는 여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어 왔다. 또한 일부다처주의는 무서운 저주였다.

다윗의 가정이나 야곱의 가정이나 요셉의 수난도 결국은 일부다처주의 때문에 고초를 당했던 것이다. 우리가 일찍 생각하면 구약에서 일부다처를 허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랬으니 그것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나 하며 의심할 가질 때가 많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관용한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그것은 관용이 아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일부일처를 매우 강조했다. 죄를 범해서 일부다처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셨거나 용서를 하신 것이 아니고 순전히 이방종속이다. 이방종속에서 나온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은 아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이방종속에서부터 해방과 탈출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여러 족장들의 일부다처주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그들에게 주었다. 자녀들의 싸움, 이스마엘과 이삭의 투쟁,

“순결성은 반드시 결혼의 필수조건이다. 정신적인 일부일처, 신앙적인 일부일처를 잘 지켜 순결성을 유지해야 한다.”

요셉의 수난, 다윗의 가문에서 슬픈 비극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등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징계인 것이다. 그래서 1남 1녀의 순결성을 유지하지 않을 때에 성경 역사적으로 보아도 순탄치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의 불행의 원인이기도 하다.

생리학적으로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1남 1녀를 지었다. 이 법칙은 계속 즉 내려오고 있다. 인구 통계로 보아도 남자와 여자가 간혹 차이가 있으나 비슷해진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가 많이 죽게 되어 전쟁이 지난 후에는 여자의 사망률이 높아 남녀의 균형이 맞아진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상한 섭리인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보아도 아내들의 시기·질투로 인하여 가정에 피로움과 불안이 따른다.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가정은 늘 편안하지 않다. 남편이 모르는 아내의 죄, 아내가 모르는 남편의 죄, 그 죄가 깃들고 있는 순결이 없는 가정은 그 가정에서 행복을 찾아볼 길이 없다. 그러니 결국은 정신적 생리학적 심리학적인 문제라도 1남 1녀의 원칙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한 부부의 결합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순결성은 반드시 결혼의 필수조건이다. 정신적인 일부일처 신앙적인 일부일처를 잘 지켜 순결성을 유지해야 한다.

밀레의 만종을 보면 하루의 노고를 다 마치고 부부가 삼자루를 내려놓고 같이 머리를 숙여 그 날에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어서 무사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광경을 보지만 해도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알 수 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는 가정이 순결한 가정이며 행복한 가정이다. 초라한 밤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과 서로 의심하고 흘려보는 가정에서 아무리 고상진미를 차려 놓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가정에 행복이 있었는가? 감사·순종·사랑, 이 모든 것은 순결에서 오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기초는 순결이다. 그리스도께서 몸과 티가 없다고 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회개하기를 그리스도가 깨끗한 것 같이 자기도 깨끗하기를 애쓰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했다.

세상 교회는 범죄한 것도 많지만 눈물도 많으며 그래서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가르치듯이 순결은 절대 필요 불가결하다.

순결한 가정은 분위기가차 아름답고 그러한 가정의 자녀야말로 경건하며 복을 받고, 순조롭게 자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화류병을 주신 것도 1부 1처를 지키지 않는 데서 나타난 것이다.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욕망에 기초를 둔 것이라면 일부 다처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 즉 마음과 육신 어떤 의미에서는 영혼까지 함께 결합해가지고 한몸을 이루는 것이다. 부부간에 충성·의리·순결성이 없으면 절대로 결혼에 행복할 수가 없다.

2. 애 정

어떤 사람은 애정을 순결성보다 더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이다. 순결에서 솟아나오는 아름다운 향기와 꽃이 애정이며 사랑인 것이다. 결혼은 분명히 두 남녀의 사랑의 결합이다. 그러나 요즈음의 결혼적령기의 사람들의 사랑은 상당히 무책임한 사랑 같은데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저속한 기분주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듯이 사랑은 상당히 도덕적이고 기술적이다. 더 나아가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 사랑은 도덕적·책임적 의무적인 것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며칠 못 가는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 밑바닥에는 상당히 책임의식과 도덕적인 의무가 뒤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없는 사랑은 거품에 지나지 않고 오늘은 사랑하다가도 내일은 미워하는 감정으로 변한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결혼하면 절대로 일생을 유지하지 못하며 연애결혼의 실패 중 태반이 그러한 사랑을 갖고 결혼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은 신앙적인 인물이 같아야 한다. 가치관 즉 인생을 보는, 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같아야 하며 목표가 같아야 한다. 결국 신앙·인생관·세계관이 같아야 일생을 지낼 수 있다.

이러한 1남 1녀의 깊은 애정, 그속에 숨어 있는 도덕적·사회적·신앙적·이념적인 사랑, 그 사랑만이 일생동안 불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애정관념에 있어서 철저하게 어떤 가치관을 수립해야 하며 취미가 좀 다르다고 해서 문제시할 필요가 없을 줄 안다. 오히려 다르므로 인하여 유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방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남자를 택할 때

“결혼은 신앙적인 이념이 같아야 한다. 가치관 즉 인생을 보는, 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같아야 하며 목표가 같아야 한다. 결국 신앙·인생관·세계관이 같아야 지낼 수 있다.”

교회에서만 택하게 되지 않기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목사들이 중매도 많이 서야 할 것이다. 서울에는 기독교결혼상담소가 있는데 당회장의 추천을 가지고 와야만 상담하게 되어 있다. 이것 역시 크리스찬의 가정형성과 봉사에 대한 권면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방결혼을 막기 위해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방결혼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이념적인 문제, 가치관의 문제 등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교회로 분명히 인도할 수 있겠는가를 판단하여 자신이 서면 결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간이 걸리더라도 1~2년간 전도를 하여 신자로 만들어서 자기와 같은 이념을 갖게 하여 가치관을 수립하게 되면 이방결혼을 굳이 막을 필요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본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가면 손을 떼야 하며 불가능하면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성경에서도 이방결혼을 금했다. 그러나 한가지 이상한 것은 나옴이나 롯과 같은 여성, 기생 라합 등 모두 이방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가문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그것을 볼 때 나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폐쇄사회를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사람들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받아들여 이방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결심하고 들어올 때는 얼마든지 문호를 열어서 들어왔는데 들어온 후에는 다시 구별하지 않아 동족취급을 했다. 완전히 유대사람에게 동화되어 생활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했고 문호개방을 했으나 이방인과 함께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완전히 자신이 있다면 이방결혼을 막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같은 이념과 신앙을 갖고서 결혼에 골인하여야 한다.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끊어야 한다.

또 여기에 사도 바울이 독신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했을 때, 흔히 처녀들이 시집 안 가는 것이 좋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독신주의로 있겠다고들 한다. 말처럼 독신으로 지낼 수만 있다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좋은 일터도 구할 수 있게 되므로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있어 사회에도 이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좋을 듯하다. 즉 결혼상대자와 역지로 결혼해 가지고 고생하느니보다 차라리 독신으로 지내면서 자기의 기술을 연마하고 사회에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주님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길이 좋을 것이다.

한평생이라는 것은 짧다면 짧은 것이다. 사도 바울

도 그런 것을 느낀 것 같다. 자기가 앞으로 순교할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 환난도 생각하니 인생이 긴 것이 아님을 알고 자기가 일생동안 비록 가정은 이루지 않았으나 가정을 이루는 것 이상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길이 있다면 구태여 독신주의를 금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독신으로 있기 위해서는 각오와 결심이 단단해야 하며 사람 생김생김에 독이 있어야 한다. 이리저리 쏠리던 독신하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한다. 그러므로 마음 굳건히 먹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결혼했다고 하여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한 사람이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크게 성공한 인생인 것이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부부로 설명했는데, 기본이 순결이고 그 다음에 가르친 것이 순종이다. 즉 아내는 남편을 꼭 머리로 섬기라고 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듯이…… 이 다음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남자의 직업이 변변치 못해 돈벌이를 못하고 아내가 돈을 벌더라도 그 가정이 화평하려면 아내는 꼭 머리인 남편을 섬겨야 하는 법이다. 그럴수록 더욱 더 머리로 섬겨야 된다.

이와같은 마음과 아량이 없는 여성은 아내로서 성공할 수 없다. 결핍하면 남편을 무시하고 “당신이 뭐요?” 하면서 생활한다면 일생 그 가정에는 화평과 평안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자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순교하란 말이 아니라 십자가라도 지라는 말이다. 아내의 십자가와 남편의 십자가가 다를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라는 말이다 결국 그만큼 절대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남편된 자는 그만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위험한 곳은 남자가 먼저 들어가서 여자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다. 야곱의 못된 겁이 바로 그겁이다. 죽을 데에는 자기 아내를 보내 자기는 뒤떨어져 어떻게 되나 하는 식의 행동으로는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다. 위험한 곳, 어려운 곳, 피로운 곳에는 남편이 앞장을 서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것이 가정의 평화와 축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순결·순종·사랑이 필요하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결혼의 조건은 가정의 「순결성」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돌아나는 1남1녀의 깊은 애정」이 두가지가 필요불가결의 조건인 것이다.

<정리: 고제원 집사>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윤 형 철 강도사

<대학부 지도>

현재 세계 각국에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첫번 감사절에서부터 기인한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영국 국교회의 탄압과 핍박에 못 견딘 청교도 120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횡단하여 1620년 9월에 미국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Plymouth)에 도착했다.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질병과 싸우면서 고생하다가 드디어 이듬해 가을에 많은 것을 추수하게 되었다.

1621년 11월 29일 목요일 당시 행정관이었던 윌리엄 브래트포드(William Bradford)를 위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의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옥수수와 밀과 강낭콩과 완두콩과 과일 및 채소를 풍성히 주셨고, 또 사냥감이 풍성한 삼림과, 낚고기와 조개가 있는 바다를 주셨도다. 또한 우리를 야만 족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혹 사병과 각종 질병에서도 보호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도다. 이 모든 축복을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선포하노라”하고 브래트포드가 첫 추수감사절을 선포하였다.

그후 1789년 와싱턴 대통령에 의하여 매년 11월 26일을 정식 국경일로 하여 추수감사절로 지킬 것을 선포하였고 몇차례 날짜 수정을 거쳐 현재는 매년 11월 4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8년 제 2회 독노회에서 미국의 날짜를 그대로 받아들여 추수감사절을 지켰으나 현재는 11월 셋째주일을 감사절로 지키고 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실상 청교도들에 의하여 처음 지켜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이다. 구약의 3대 절기(출 23:14-17) 중 하나인 수장절(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함)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이다. 수장절은 유대 월력으로 매년 7월 15일(양력으로 9~10월경)부터 한 주간동안 지켰다(레 23:33). 이 수장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태도를 살피고자 한다.

첫째로 수장절은 감사절로서 다른 어느 절기보다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림으로써 감사의 표현이 절정에 달했다.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레 23:39-40)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이 절기동안 제물로 바친 짐승의 수가 215마리나 되었

다(민 29:).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절을 이토록 성대히 지킨 것은 신자의 생활중심이 감사임을 보여준다. 법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살전 5:18).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없는 자는 결코 감사가 있을 수 없고, 감사가 없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을 맛볼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最高)의 예물, 최다(最多)의 예물을 드렸듯이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또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수장절 기간 중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을 짓고 거기 거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레 23:43). 그들은 이 초막에 거하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40년간 광야의 나그네 생활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였다. 따라서 이 수장절은 단순히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들의 자세도 단순히 1년 추수에 대한 감사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야 한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모든 감사의 출발이요, 모든 감사 조건의 기초요, 최고의 감사조건이다.

한결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하나님의 구속역사를,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천국을 예표한다면 40년간의 광야생활은 성도들의 지상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 중에 초막에 거하면서 40년간의 광야생활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했듯이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나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보호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한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단순히 추수만을 감사하는 것이라면 현대 도시인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절기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원하는 심정으로 헌신하는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시며,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과 역경, 죄악의 밀림속에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구별된 감사를 표하는 절기로 지켜야 할 것이다.

개구멍과 감사

이 사 례 권사

<원간총편집위원>

내가 어린 시절에 자라나던 목사관 안방 왼쪽 벽에는 아버지(초대 이기풍 목사)께서 친히 붓으로 쓰신 성구가 항상 표어처럼 붙어 있었다. 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이었는데, 그 중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동화같은 이야기를 가끔 들려주셨다.

그 내용은 예수님은 성도들이 천당에 가던 각자 이름이 써붙어 있는 장미꽃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감사할 때마다 장미꽃이 한송이씩 피게 된다고 하셨다. 이 장미꽃은 크기가 달라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주 작은 장미꽃송이가 피고 슬프고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주 큰 장미꽃송이가 핀다는 것이었다. 이것도 저것도 감사가 없는 성도들의 장미꽃나무에는 꽃은 한송이도 없고 일단 무성할뿐 장차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설 때 장미꽃 수대로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마다 어린 가슴이 설레이곤 했다.

나는 어린 시절 어머니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주 작은 일에도 천당에 장미꽃이 피어지기 위해서 감사를 할 때가 있었다. 때로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천도하러 나가시고 진종일 집을 지키고 있을 때면 천당에 장미꽃이 많이 피어지게 하기 위해 손가락을 일일이 꼽아가면서 감사·감사·감사를 습도 쉬지 않고 계속 되뇌며 본 때도 있었다. 점점 성장하게 되고 험란한 가시밭길을 걷게 될 때마다 어머니가 일러주신 말씀에 참뜻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어머니는 때때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의 처녀 시절에 예수님으로 뭇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손동으로 눈물을 닦아가며 듣던 기억이 난다. 어머니는 1875년 황해도 안악 중골이라는 2백여호가 있는 큰 마을 읍전사택 딸로 태어났다. 어린시절부터 양반가정에서 엄격히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어머니는 15살되던 해에 피상한 열병에 걸리게 되었다. 몸은 불덩어리가 되고 가끔 헛소리까지 겹쳐서 온식구들이 가슴을 조이게 했다.

이 열병은 3년간 계속되었다. 그 당시 한방에서는 병명을 초학병이라고 불렀는데(이것은 현재의 말라리아이다) 백약이 무효이고 점점 식음마저 전폐하게 되자 떠난 양상한 해골과 같은 산 송장으로 변해버렸다. 어머니의 나이는 어언간 18세가 되었다. 이제 모든 소망은 끊어지고 죽는 날만 기다리며 자리에 누워 기나긴 하루해를 넘기곤 했다.

그 때에 마침 원한경 박사(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역임)의 부친인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김재봉씨에게 구원의 도리를 듣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구세주임을 확신하게 되자 어머니의 입에서는 그칠새 없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 흘렀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은 지 한달만에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을 만나뵈게 되었다.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이 손에 등불을 쥐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취주시더니 야랫쪽 문을 열고 사라져 버리셨다. 불을 비취주시던 순간 어머니의 온몸은 불과 같이 뜨거워지더니 움직일 수 없던 팔다리가 움직이게 되었다. 어머니는 엉금엉금 기어서 예수님이 나가신 문쪽으로 다가왔다. 송장같이 누워있던 어머니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된 의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셨다. 어머니는 이 무서운 병마에서 해방이 되었다. 완전히 예수 미치광이가 되어버렸다.

마침 이때에 황해도 안악지방에 마포삼일 선교사가 사랑채 작은 골방에서 기도회를 시작했다. 이 소문을 들은 어머니는 목숨을 내걸고 십자가가 꽃혀있는 이 사랑채를 찾아가셨다. 그 오묘하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감격하여 침식을 잃고 쪽복음을 읽기 시작했다. 읍전사택에서는 어머니가 양귀신에게 홀려서 미쳐다닌다고 무당을 떼려다가 큰굿을 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쪽복음은 무당의 손에 불타버리게 되고 어머니가 입고다니던 출입옷도 다 태워버렸다.

어머니에게는 무서운 금주병이 내려졌다. 한발치라도 대문 밖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어머니는 골방에 엎드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드렸다.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 새벽 2시경 일어난 어머니는 안채 뒷뜰 구석을 호미로 조용히 파기 시작했다. 첫삽이 울기 시작하자 마른 풀잎으로 덮어놓고 다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2시에 뒷뜰에 나가서 필사적으로 개구멍을 뚫었다. 나흘째 되는 날 비로소 사람몸통이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뚫렸다. 어머니는 개구멍에 엎드려 할렐루야 감사기도를 드렸다. 평양성으로 향해 가려고 결심하여 파놓은 이 개구멍은 마치 천성을 향해 가는 황금보석문인 것같은 감사에 북바쳐 하염없는 눈물로 그날 밤을 지새웠다.

칠달 그믐날, 새벽 첫닭이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골방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는 재빨리 부엌에서 숯덩이를 가져다 온 얼굴에 그리고 거지로 분장했다. 작은 보통이를 가지고 개구멍을 무사히 헤쳐나가는 데 성공했다. 개구멍 밖에 나온 어머니는 뿔뿔 나뉠 듯한 몸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를 드렸다. 밤에는 남의 집 아궁이에서 낮에는 거지가 되어 부지런히 걸어서 보름만에 평양성에 도착했다. 어머니의 발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으나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하루종일 계속되었다.

세 속 주 의 비 판

김 차 생 장로

<당회원·월간충원편집위원>

오늘의 시대는 혼돈·공허·흑암의 깊은 때이다. 오늘날의 시대를 특징하는 도덕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인 퇴폐와 감각적인 쾌락에 미치는 영향은 마치 성난 홍수와 같아서 막을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신을 해야 하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범행은 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오늘날 신앙사조도 복잡하여 신자들도 어떻게 믿는 것이 참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많다.

요즘 흔히들 말하기를 아무렇게나 믿어도 예수만 믿었으면 그만이지 어떤 제재를 받아 가면서까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요즘 다방교회 동산교회 등이 생기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고 건덕은 사람들에 대하여 가질 사람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준수하고 오직 그에게만 절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주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수교회마저 모든 면에 너무 세속화하고 있다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90여년전에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행위가 아름다웠다. 그것은 복음을 받은 후 그 생활이 빨리 합리적으로 살도록 적응을 했다.

예를들면 1미터나 되는 담배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하니 비굴스러웠다. 또한 이조 말엽에는 서민들이 진출할 길이 없어 출세를 못한 사람들이 술마시고 먹고 노는 방탕한 생활을 했다. 이것을 선교사가 볼 때 매우 퇴폐적인 풍습이었다. 그래서 뭔가 불신자보다 모범생활을 하자 해서 주조를 하지 않게 되었다.

당시 사경회라하여 특히 겨울에는 땃집리를 쌀만 가지고 가면 본교장 교인들은 그들을 음식대접을 했다 그리고 성경만 가르쳤다.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쪽복음을 잔뜩 머리에 이고 1권씩 팔면서 다니다 배고프면 얻어먹고 잠도 자면서 즐거움으로 다녔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이상하여 선교사를 보낼 때 90% 이상이 철저한 보수주의적 신앙을 가진 선교사가 왔다. 특이할 만한 것은 당시 무식한 서민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소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장점이다. 반대로 일본은 이 기독교를 지적으로 받았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래된 이래 지난 1세기 동안 한국교회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경건한 건덕의 생활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날이 가면 갈수록 초대 한국교회가 이루어 놓은 아름다운 경건생활의 덕이 갑자기 밀려온 외래의 풍조와 물질주의로 가치관이 전도되면서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씩 둘씩 허무러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갑자기 이루어지는 도시화의 현상이 교회의 세속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의 치리권마저도 그 권위를 상실한 데 큰 원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경시대의 전원적인 윤리가 팔시를 받고 있는 형편이니 아직도 시대의 뒤떨어진 옛날 이야기만한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교인들에게 강하게 꾸지람을 할 수 없는 오늘날의 힘없는 한국교회의 적당주의 때문에 교회의 세속화는 날로 가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주초문제 같은 것은 교회 안에서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맥주는 음료수이지 술은 아니라고 한다. 청소년들은 교회 안에서 유행가를 불러도 주일날 극장 다방 등 오락장에 출입을 해도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 같다.

요즘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은 복음송이 유행하면서 이제는 세속적인 유행가곡에다가 가사만 붙여서 젊은 이들이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점점 노골화되어 가고 있다.

성수주일 문제도 자유주의·보수주의 교회 할 것 없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날에 할 것 다 한다면 불신자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는가. 예배드리는 것 외에 개인문제 사사로운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계명에 강조하고 있다.

주초 문제만 하더라도 술을 마셔서 즐거운 기분이 되는지는 몰라도 결코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심지어 일부 목사·장로들까지도 겁없이 술을 마신다는 것은 백보를 양보해서 생각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주초를 교회가 금한 것은 실로 잘한 일이며 아무리 시대가 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름다운 전통임에는 틀림이 없다.

몇년전 모교단에 소속한 목사가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렸다가 망신을 당한 그 망신은 그 목사 한사람의 망신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망신이었다.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었을 때 참으로 곤욕스러운 입장이 되었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요즘 교회 청년들이 공공연하게 주초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주초의 문제는 뚜렷하게 성경에서 금한 것도 아니고 선진국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히 교회가 필요 이상의 간섭을 한다고 오히려 신

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다른 교회는 아무 문제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서 공인한 울무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에 울무가 되게 하고 있다고 불명이다.

필자가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자유주의 교회의 청년들의 하는 소리이고, 우리 보수 진영의 교회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른다. 현재 주조문 제만 보아도 자유주의나 보수주의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신앙적 바른 지도가 시급하다.

교회가 세속화한다는 것은 꼭 주조문제만 가지고 말한다는 것이 오히려 썩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한국교회가 너무나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을 도의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현대교회가 지나치게 관용을 내세우고 편정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한 경고를 하지 않은 것도 너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판단으로 교회를 치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신학교가 무수히 많지만 철저한 신앙적 사상으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깊이 반성할 문제다. 혹시 치리를 해야 할 문제로 마음이 상하여 자기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교인을 빼앗길까봐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교회를 세속적으로 타락시키는 일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한없이 타락하고 있는 오늘과 같은 사회에 기독교자를 마저도 이들과 조금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로 한심한 일이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사실 오늘날처럼 사회가 이토록 타락한 데는 교회도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소금과 빛의 책임을 다 함으로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는 제동장치의 구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높은 도덕적 규범을 교인들이 지켜 간다면 오늘처럼 추악한 모습으로 사회가 몰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을 윤리적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데 갈 동안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느냐가 문제다. 우리는 죽을 이전과 저편을 연결시켜 현세를 살아야 한다.

그리고 윤리의식을 결단성있게 확립하고 주님의 재림을 전심하게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자.

4) 빛과 사랑을 찾아서/三浦綾子저 백승인역 설우사간 232p.(이성운선생 기증)

5) Australia for everyone modern guide White Osmar저 1974.(남기영선생 기증)

IV. 도서실 소식

1) 더 많은 도서 수용을 위해 책장을 제작(7자×8자)비치하였다.

2) 특강: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교우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본 도서실에서 12월 초 「보수주의와 문서운동」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준비 중에 있다.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제와 그밖에 많은 서적을 준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10월 중 구입한 도서

I. 신학도서

1. 사전류

1) 설교예화대사전/박종구저 신망애출판사간 1905p 1978.

2. 주석류

1) 랑게주석사무엘하/FAY, F.R저 배영철역 백한출판 597p. 1978.

2) 칼빈주석 V;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후서/칼빈저 신교출판사간 544p. 1978.

3. 구약

1) 구약예언서/원용국저 성광문화사간 317p. 1978.

2) 구약성문서/원용국저 성광문화사간 260p. 1978.

4. 신약

1) 사도신경강해/로키버 브루스저 문석호역 생명의말씀사간 156p. 1978.

5. 기독교윤리

1) 기도의 무장/바운즈 E.M저 한준수역 생명의말씀사간 169p. 1978.

6. 인문

1) 토리목사의 생애/마틴로저저 이종수역 한국성서유니온간 239p. 1978.

2) 칼빈의 경건생활과 기도/에드워드저 문석호역 166p. 1978 생명의말씀사간

7. 설교집

1) 박조준목사설교집/① 삶의 지혜 ② 믿음 더욱 주소서 ③ 개척자의 길 ④ 위대한 결단 기독교문서간

2) 어린이 설교집/하늘나라 열쇠/임승원저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발행 158p.

3) 요약설교씨리즈/전30권 스펜존목사의 즉석설교집의 29권 김만풍역 아가페출판사간 1978.

8. 세계사

1) 인간세계사 10권/타일라이프사 고대그리스—근대유럽 한국일보 타일 라이프사간 1978.

II. 양서

1. 주석류

① Keil-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0V.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6.

III. 기증도서

1) 마태복음(하)/헨리 매튜저 고영민역 기독교문서(김연이 선생기증)

2) 교육은 다시 없다/투니어 풀저 윤경남역 보이스사간 313p.(김연이 선생기증)

3) 학원선교/칸델론 존. 저 이정기역 보이스사간 186p.(김연이선생 기증)

12월 21일

최소한의 예의

고 제 원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새롭다. 요즘을 충효사상을 강조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현실은 누구의 잘못이며 또한 이래로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바로 기독교인들의 잘못이며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러한 조류가 교회에까지 침투되어 오고 있으니 안타까울 수 밖에 없지 않은가?

9월에는 교회설립 25주년 기념 음악 예배를 드렸다. 많은 성가대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봉사하였기에 은혜스럽게 마쳤다. 개인의 자격으로 모여 연합성가대를 이뤄 대규모적으로 이번 행사를 마쳤다는 것은 당일 음악 예배를 드린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봉사자의 자세를 생각해 본다. 봉사라는 단어 자체가 말해 주듯 적당히 하는 식이나 마음에 맞는 것만 하는 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닐 것이며 교회 봉사는 더욱 그러하리라 본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니 인간적으로 힘이 드니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식의 봉사는 봉사가 아닐 것이다. 점심을 국수먹고 봉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봉사가 얼마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누구를 위한 봉사인지 모르겠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봉사가 진정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봉사자로서의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예의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과도 결부시킬 수가 있다. 최소의 양심! 봉사자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귀한 말인 줄 안다.

최소한의 예의! 특히 젊은이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자만과 문벌없는 젊음의 패기로 이성을 잃게 되어 예의에 어긋난 행동들을 하고도 자기네들의 행동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예의를 무시하고 양심보다 '그럴 수 있다'라는 막연한 가능성으로 최소한의 예의까지 짓밟아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의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하여 나 하나 먼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옛날의 동방예의지국이 오늘날에도 불리워질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앞에서도 회생정신을 가진 올바른 봉사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만 할 것이다.

찬송가 감상 ⑨

선한 싸움 위해 (새 631, 합 375, 개 356)

김 중 석 강도사

<제이성가대 지휘>

「선한 싸움 위해 받은 십자가
군기를 굳게 잡고
왕의 기수되어 용감스럽게
찬미하며 나가세」

전쟁에서 군대의 가장 큰 치욕은 군기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군대의 표시인 깃발은 적에게 빼앗기면 전쟁에 진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가장 강하고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자에게 깃발을 들리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 찬송에서 우리 신자는 모두 군기를 든 자라고 노래합니다. 그것도 보통 깃발이 아닌 왕의 깃발을 들었다고 노래합니다.

왕의 깃발을 든 그는 가장 정예 군인이 아니겠습니까? 왕의 깃발을 펼치며, 번쩍거리는 의(義)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가슴을 넓게 열고, 능률하게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의 정병을 생각해 보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 과연 전장에 나서는 감동을 갖게 됩니다. 음악이 또한 진격의 북을 울리는 듯 상승 곡조로 행진곡풍으로 되어 잘 조화되고 있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싸우면
최후 승리 얻겠네

드디어 접전(接戰)의 나팔이 울리고 "나가세 나가세" 합성과 함께 선한 싸움위해 용감스럽게 나아가는데, 우리의 대장되시는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최후 승리 할 것이 확실한 이 전투에서, 우리는 다만 목숨 다하여 싸우면 상급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찬송입니다.

우리 한국은 분명히 복음의 가치를 높이 들 때가 왔다고 믿어지는 이 때에, 우리 믿는 이들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의 군가(軍歌)를 많이 불렀으면 합니다.

이 찬송시 "왕의 깃발 들리워네 There's a Royal Banner"는 미국 해군 대령 출신 다니엘·윌틀(Daniel Whittle 1901~1940)이 지은 것입니다. 윌틀은 전도자인 무디 선생을 도와 여러분의 찬송시를 썼는데 새 652장 "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새 469장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새 289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 334장 "빈들에 마른풀 같이" 등이 많이 불려집니다.

작곡자 맥그라나한(James Mcgranaham 1907~1940)은 전도가수(傳道歌手 Gospel Singer)로서 무디 선생을 도와 미국과 영국을 두루 순방하면서 일했습니다. 그가 지은 곡조로는 새 277장 "천국길을 버리고" 새 334장 "빈들에 마른풀 같이" 새 289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등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애굽

개척과 성장을 위한 활동

인도네시아(6-8월)

1. 개척지 상황

판데안 지역—수도사 12명의 새신자를 얻었으며 5명에게 세례를 베풀.

위노기리 지역—마르판도 전도사가 새신자 1명을 얻었음.

시도물요 지역—수나르다 전도사가 2명의 새신자를 얻었음.

위노사리 지역—라포노 전도사가 주일학교를 부흥시켜 40명에 이룸.

2. 서부, 중부, 동부 자바 지역 순회 보고(7월 1일—21일)

1978년 4월 16일 여러 성도들의 성원으로 중부 자바 벽지에 8명의 개척자를 파송한 이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파송된 사역자들의 아낌없는 노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음을 감사 드립니다. 우리의 파송된 사역자들은 자부심을 갖고 과감히 일하므로 그 일부는 이미 지역사회의 인정받는 유지가 되었으며 인근 목사와 전도사들의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역자들은 이미 세례 청원자들이 생겨 성례식을 거행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으므로 본 선교부는 서부 뉴기니아 일정을 변경하여 이들을 방문 격려하며 12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한편 39명의 결신자를 얻었고 서부와 동부 자바의 여러 지역을 답사하였습니다. 이번 순회중에서 본 선교부의 파송 받기를 신청한 사람들은 현지 목사를 비롯하여 남녀 전도사들이 30명에 달하여 우리는 속한 시일내에 이들을 다 파송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① 팔로지역

이곳에는 자바민교회, 중국인교회를 비롯하여 오순절교회 등이 있는데 3일간에 걸쳐 6개 교단으로부터는 30여명의 목사, 전도사들과 함께 팔로지역의 복음화를 협의하였으며 여기서 18km 떨어진 "펠로요"교회 부흥집회에서는 27명의 결신자를 얻었으며 팔로지역에 3명의 개척자를 파송기로 하였음.

② 위노사리지역

이곳에 파송받은 안드레아스 라포노 전도사는 이미 지역사회의 유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위노사리 교회를 중심으로 3개 촌락에 각각 개척교회를 시작했음.

③ 위노기리지역

여기에 파송된 "조진 마르판도"전도사는 35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시켰으며, 본 순회팀은 세례 청원자 17명중 12명에게 세례 및 성찬식을 거행하였음. "판데안"촌락에 파송받은 "다빈 수교요"전도사는 60명의 장년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켰음.

④ 툴롱아궁지역(동부자바)

"툴롱아궁"교회의 "수물랑"목사가 개척하는 "방안"교회는 건축허가 수속중에 있었으며 "따판"촌락교회는 이미 교인 수가 40명에 이르고 있고, "깜딱"교회는 2년 전에 시작하여 현재 장년이 200명에 달하고 있었으며 2개의 개척교회를 이미 설립하고 있었음. "꼴탈부텔"교회는 예배당을 신축하여 계속 부흥 중에 있고 "툴롱아궁"교회에서는 3일간 부흥집회를 인도하였는데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교인 수가 더하였고 12명의 결신자를 얻었음.

3. 예배처소 및 사택 개관

도원회에서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람뽕지부(지부장 베드로목사)는 예배처소 및 사택을 건축하고 지난 7월 5일 인근 교역자들과 지방유지가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음. 그리고 1978년도 어린이 하기학교를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하여 66명의 어린이가 수료하였음.

4. 한인교회 수양회

산하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에서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자바의 서단 해안에서 1978년도 하기수양회를 개최하였는데 58명의 교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라는 주제 아래 새벽, 오전, 오후 밤집회를 통해 더모데전서와 후서를 공부하였음.

애굽(이집트)

1. 7월 29일 카이로 주재 한인 부인회에서 "구약과 애굽역사"에 대한 특강을 하였음.

2. 매주 토요일 카이로 주재 교민을 상대로 성경공부를 하고 있음.

3. 8월 6-10일까지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은혜중에 마쳤음.

4. 8월 15일 지방 순회차 타니스를 다녀왔는데 현지의 유지인 화디(고등학교 교사)씨의 협력을 얻어 지교회를 설립하고자 기도중에 있음.

5. 8월 22, 28일 양일간 애굽 주재 교민 가정중 타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가정에 와서 지내는 것을 알고 특별히 심방하여 예배를 보아 주었고 이들에게 성경·찬송가를 선물하였는데 한 학생이 주님을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여 독실한 신자가 되었으며 현재 스위스에서 한인교회 반주까지 하고 있음.

6. 9월 5일 카이로 주재 한국 공관에서 카이로 근교의 성지 순례를 안내하여 달라고 해서 이들을 안내하면서 전도를 하였는데, 이후 2가정이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음.

7. 매주 토요일에 대사관지에서 애굽 역사와 성경의 배경을 연구하면서 출애굽기 성경공부를 하고 있음.

잘못 배달된 우편물 같아

김 연 이
〈대학부 교사〉

25주년 기념 웅변대회에 대한 광고를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뭔가 뜨거움이 솟구치며 나도 출전해야겠구나 하며 결심했다. 이 결심이 변치 않게 나는 여러 사람에게 출전의 뜻을 밝혔다. “아니 당신이 웅변을 한다고? 켄켄켄” 남편의 웃음소리를 듣자 나도 참 우습기도 하고 겸연쩍기도 했다. 내 나이 37, 웅변이라곤 고 1때 한번 했다가 입상도 하지 못한 채 웅변엔 소질도 없고 내 분야도 아니라고 생각한 후 20여년 동안 한번도 해보지 못했고 웅변에 대한 지식도 기교도 없던 나 아닌가? 마치 총쏘는 법도 모르고 전장에 나가는 용사와 같았다.

그러나 내가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는 원고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케 하시고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역량과 제스처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나는 원고를 여러번 읽어 보았다. 그러나 설교도 아니고 강의도 아닌 「웅변」이라는 과제는 내가 풀기엔 어려운 난제였다. 나는 내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점점 용기가 줄어들었다. 강단에서 원고를 읽어버려 얼굴이 싹털개진 채 쫄쫄때는 내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관중석에서 푹푹 웃는 모습도 보였다. 강조할 곳에 이르러 피상한 소리를 발하는 내 모습에서 주일날 얼굴을 못들고 다니는 내 자신이 보이기도 했다. “아이구머니 내가 주책이지. 내가 무슨 웅변을 한다고. 총성도 봉사도 좋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 따라 할 일이지. 망신 당하기 전에 일찌감치 그만두자.” 내 마음은 싹 식어버렸다.

1차 마감날에 원고를 제출치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은 편치가 않았다. “지렁이 같은 야곱도 이가 날카로운 새작기게로 쓰신다 하였는데...” 나는 진행위원에게 가서 연사가 많으면 이번엔 포기할 뜻을 비쳤더니 지금 원고가 6통밖에 들어오지 않아 여간 걱정이 되지 않는다 했다. 모든 성도가 방관자가 된채로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나는 분명히 보았다. 나부터 이런 마음을 먹었으니...

나는 다음날 원고를 다시 정리해서 2차 마감날 제출했다. 이젠 꼼짝 못하게 했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 기도를 하였다. 빌 1:23의 말씀이 떠올랐다. 용기가 솟았다.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실패를 해도 그것을 통해 뭔가 얻을 수 있겠고 잘하지 못해도 주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전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낮에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교회 성경학원에서 공부하는 나로서는 소리를 내어 한가하게 연습할 시간도 장소도 없었다. 나는 길을 걸으면서 서 의우고 힘있게 외쳐 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

끗힐끗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것을 상관하기에는 내 상황이 너무 긴급에 처해 있었다. 목요일 예선을 거쳐 토요일 본선이 있게 되었다.

금요일 수업을 마친 후 나는 학교 강당 옥상으로 올라갔다. 쟁쟁 내려찍는 햇빛을 받으며 탁 트여진 허공을 향해 몇번이고 몇번이고 열변을 토했다. 땀별 아래 꿇어앉아 “주여, 이번 웅변대회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선교의 물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집에 와서 녹음을 해 가면서 시간을 조정하고 음성울 조정해 보았다.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개발되지 않은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했다. 웅변이란 생각보다도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 외우는 것은 제가 하고 그외 모든 것은 주님이 하세요. 웅변에는 문외한이며 소양도 재능도 없는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기도를 하게도 되었다.

그런데 정말 큰일이 생겼다. 낮에 너무 무리하게 고함을 질러 밤부터 목이 쉬기 시작했다. 염려하는 내게 “생계란에 식초를 타서 마셔요. 용기를 내요!” 남편의 위로도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잠결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다시 불러 주시도록 기도했으나 아침에 일어나 ‘아’ 하고 소리를 내어 보니 콧 잡겨 썩적썩적 소리는 기분을 언짢게 했다. 창자가 나를 정도로 고통을 질러 맨대다가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 헛바늘까지 돌아서 말하기 조차 거북했다. 오후 2시면 본선인데 낙심천만이었다. “진작 그만둘걸” “아니야 주님이 하실거야”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움을 했다.

일찌감치 교회에 가서 앞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주님 영광 위해 일하기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절실히 깨달았다. 주님의 위리가 나를 감싸주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특등」이라는 글자와 내 얼굴이 박혀 있는 아름다운 상패를 앞에 놓고 아무래도 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을 확신하여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이번 웅변대회를 통해서 자칫하면 내 임의로 주님의 역사를 회피하고 성령의 능력을 제한할 뻔했구나 생각하니 놀라운 생각마저 든다.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신다는 것과 이미 주셨으나 알지 못하고 있는 은사를 계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몇 십배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주님의 풍성함을 생각하며, 이 상패가 감격하거든 하물며 하늘나라의 면류관이라 할렐루야!

강변기행(江邊紀行)

원 용 규

<초등부교사 청년부회원>

나는 할 수 있다

김 종 주 집사

<고등부 교사>

나는 자신 만만한 패기에 찬 사람이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냐 하면 되는 「믿음 아닌 신념」에 꼭찬 사람이었다. 번창하는 사업 위에 교만의 「바람람」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워 가신 것이다.

이때부터 「고난의 계절」이 시작되어 산과 기도원에 서 철저히 회개하는 「인생재생수업」이 계속된 것이다. 사실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주장대로 신념과 개똥철학을 세우며 내 재주와 내 머리로 모든 일을 처리하였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힘든 육(肉)에 속한 교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나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에 「사랑의 매」로 치신 것이었다. 물질적인 모든 것을 거두워 가셨으나 영적인 축복을 넘치도록 주셨다. 말씀의 깊은 맛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주셨으며 맨나중에는 물질의 축복도 주셨다. 말씀과 기도와 책과 씨름하는 생활로서 고난의 계곡을 지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나의 짧은 인생의 여정에서 값진 것이었는지 표현할 길이 없다.

좌우간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의치고 전할 수 있으리라. "난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젠 나는 그 무엇을 할려고 발버둥치지 않는다.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고 가르치시니(요 14:16~7) 나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순종하는 생활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날 위해 매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무엇이 두려우랴!

또한 나에게 무진장한 영적인 자원을 주셨으니 나는 이제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I CAN in Jesus) 고로 나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32,500가지의 약속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받아들여 풍성히 열매 맺는 승리의 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다.

산속에서만 자라는 나는 강 찾기를 즐겨한다. 사람들이 인생의 행락(行樂)을 얘기하기에 인자요산(仁者樂山) 지자요수(知者樂水)라고 구분지어 얘기한다. 아마도 인자(仁者)는 산처럼 변하지 않는 의젓함에서 연유한 듯하며, 지자(知者)는 물처럼 흐르는 맑음을 애기한 듯하여 맞는 얘기임을 느낀다.

강산은 자연의 한 부분이다. 자연을 대표하는 거장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도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말씀하신다. 무수한 세월의 흐름속에서 그 모습을 잃지 않고 가꾸며 자라나는 자연이기에, 나는 살아가는 굴레를 벗어나 에워싼 산 사이를 비집고 흐르는 강물에 발을 채워보기도 하고, 맑은 물에 얼굴을 담가보기도 한다.

수일 전, 나와 몇몇 식구들이 찾은 강가는 내나라 분단선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입진강변 버드나무들이었다. 논길을 비집고 강변에 들어서자, 강가 철책선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강변을 무장한 채 보초하고 있었으며, 철책 너머로 보이는 강은 적막한 해안을 연상시켰다. 서울을 지나 위로 올라올수록 배부 길속이 느낄 수 있었던 정적과 평화는 강가에 이르자 여지없이 박살나고 말았다. 강 건너 요란한 포성이 간간히 들리는가 하더니, 이내 나의 고향에서 터지는 듯한 정적을 깨는 비극이 일었다. 철책선 위로 겹겹이 휘두른 철조망 그리고 그 삭막함을 감싸기라도 하듯 월덩굴이 휘감아 마치 회비가 엇갈리는 쌍곡선을 또 한번 연상시켰다. 비극은 강가 철책선 철조망 위에 찢기면 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월덩굴 위에 있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남다른 슬픔임을 알아 침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변루 방촌 황희(黃喜) 정승을 기념하여 세운 반구정에 자리하고, 철책선 너머 강을 굽어보니, 여기가 자유의 마지막 보루인가 하여 답답한 마음을 박차고 강가를 거닐었다. 겨울로 향하는 늦은 가을비가 강바람과 합하여 길속이 한기가 스며든다. 마치 자유가 그리운 우리의 형제들을 만나러 갔던 자연의 바람이 그 싸늘한 공기에 추방 당해 내려오는 그런 강바람이 소리없이 내려불고 있었다. 은은하던 포성이 반쯤에 닿는 듯한 소리로 나의 뒷머리를 치듯이 요란하다. 어느곳을 향한 포격이며, 저 내 형제야 겨우 총검은 누구를 향한 응시인가? 생각에 생각을 더하다 보니, 새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신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난다. 가까이 강가를 노니는 풍류객들의 장단소리가 요란스러움을 본다. 강변철책이 꼭 이 입진강변에서만 이뤄져야 하나 하는 한숨과 함께, 자유를 아꼈 줄 모르는 방종하는 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항시 지뢰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숙명적 민족인지도 모른다는 약한 생각이 든다.

자유는 방종하는 것이 아니기에 아껴야 한다. 우리의 사랑하는 강 건너 형제들을 생각해서라도..... 차는 강변을 지나 포성을 위로 하고, 긴 대로를 밟아 자유로 향하고 있었다.



충현교회에 오시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오게 된 동기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을 동경하게 되어 있던 차 충현교회 기도원을 생각하여 부탁하였는데 그 일이 이루어져 오게 되었으며, 제가 오기 전에는 부산노회에 속해 있는 부산의 수정중앙교회에 있었지요.

충현교회와 충현기도원을 보시고 맨 처음 느낀 소감은 어떠하신지요.

기도원은 밤에 방문을 했는데 자동차 라이트에 묘지 가 비치는 순간 저의 감정과 사상이 변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땅에 들어가 자야 할텐데..... 그러니 남은 인생을 좀 더 보람있게 살고 가치있게 생활해야 되겠다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기도원이 라면 다른 기도원과 같이 초라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매우 훌륭하고 여건이 적격이어서 한국에서 제일 모범 된 기도원을 만들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충현기도원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회장 목사님의 계획대로 운영하면서 기도원을 복음적인 기도원, 진리 파수하는 기도원, 인간을 변화시키는 기도원, 건전하고 경건한 기도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기도원, 학구적인 기도원으로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 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도원에 꽃을 심어 꽃동산을 만들어 자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 오시는 기도원과 젊은 청년들이 찾는 기도원으로 만들고 싶으며, 그러나 육신의 환자에게 대해서는 환영하고 싶지 않고 특히 정신병환자는 받지 않도록 당회에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혼의 병을 고치는 기도원이기에 육신의 환자에 대한 관심은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충현기도원을 찾는 교우들에게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모범적인 기도원으로

◇◇...월간충현에서는 이번에 충현기도원을 위해 전담교역자로 오신 한영철 목사님을 모시고 처음 오신 소감과 기도원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원으로 만드시는 게 꿈이신 한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본다.◇◇

대개 기도원에 밤에 차 타고 오셨다 새벽에 차 타고 나가시니 매우 섭섭해요. 며칠씩 상주하시며 금식기도도 하시는 분이 많기를 원합니다. 직장관계라든가 각 부서의 사정이 있는 듯 하지만요, 앞으로 교역자 없이 기도원에 들어오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전화연락하여 설교 부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주일은 어디에서 예배를 보시며, 어떻게 지도하시는지요.

주일을 여배깃 서울로 와서 예배를 드렸고 수요일 저녁도 꼭 참석했어요. 당회에서 주일 기도원에서 예배를 안 드리기로 하여 기도원에 오시는 분일지라도 가까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보게 하지요.

목사님 가족을 좀 소개해 주시지요.

아내의 성함은 김필선, 슬하에 2남2녀 두고 있지요. 장녀는 부산에 있는 전문학교 졸업반이라 거기에 있고, 장남은 충선대 1년생으로 기숙사에 있고, 2남은 경기도 광주교등학교 1학년으로 기도원에 함께 있고, 2녀는 국민학교 6학년에 재학하고 있으므로 지금 기도원에는 4식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기도원에 많이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바쁘시겠으나 나오셔서 금식기도·철야기도 등 매달려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웃 교회 성도들까지도 모시고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충현기도원에 대한 안내 내지는 피알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교회에 바라고 싶은 것은 기도원 피알을 위해 기독신문에 내었으면 하고 부흥회도 했으면 좋겠고 그러자면 기도원 전용버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버스로 타지방의 노회까지 연락해서 교통편의를 보아 주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실공히 충현기도원이 한국의 가장 모범적인 기도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같은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며 일한 충현교회

◇◇◇...그동안 전도위원회 지도교역자로 수고하시던 정기성 목사가님이 11월 우리교회를 떠나시게 되었다. 그동안 10여년을 우리교회와 함께 생활해온 정목사님의 떠남을 아쉬워하며 월간충현 편집실에서는 정기성 목사님을 잠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교우 앞에 전한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결정인지라 놀라는 사람이 많았다. 지난 10월 정기 당회에서(10월 30일) 정식으로 사표가 수리됨으로 사임이 결정된 정목사님은 11월 7일(화) 입지로 떠나셨다.

"갑자기 떠나게 되어서 무척 섭섭합니다. 이처럼 결정하게된 특별한 동기라도 있으신지요?"

특별한 동기라기 보다 평소엔 늘 저의 앞길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왔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회에서 청빙서를 가지고 장로님들이 오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결정했습니다.

"가시게 된 교회와 그곳의 형편은 어떠한지요?"

부산시 대청동의 대청교회입니다. 부산에서 변화한 곳입니다. 전 한번도 가 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오신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장년 출석이 300명정도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교회에 계시면서 여러가지 일을 많이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역임하셨던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충현교회에 온 것은 1967년 4월 9일입니다. 그때 충신 2학년때였지요. 와서 곧 임승원 목사님과 함께 유년부·초등부를 함께 보다가 1968년 유·초등부가 완전 독립하면서 저는 유년부를 계속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974년까지 7년동안 유년부를 맡아 보았고 1975년에는 교육위원장, 1976년에 전도위원회가 신설되면서부터 전도위원회 지도교역자로 오늘날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교회에 얼마동안.....?"

만 11년 7개월이지요.

"그동안 죽 교육면 특히 유년부에서 오래 계셨는데 잊혀지지 않는 일이라면?"

유년부 지도교역자로 있으면서 각과별로 모여 교사준비공부하던 일이 제일 인상 깊습니다. 각과 교사를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같이하며 성경을 배우며, 교재연구를 하고, 주일학교 행정·조직 등에 관한 문제를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며 함께 연구하던 일들이 제일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오래동안 휴양을 하고 했는데 교회에서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76년 이후에 전도위원회 일을 보시면서 느끼신 점



은 무엇인지요, 특히 해외선교면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 충현선교대회의 발제토의때에도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첫째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비단 선교사뿐만 아니라 「사람」을 키워야 하는데 이 사람을 키우는데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2억 정도의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이는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둘째는 선교지역 연구입니다. 이는 땅끝까지 회를 통하여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선교주일 학교가 개교되니까 거기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지역 연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선교에 성공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는 홍보활동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소식을 선교후원자, 곧 은 교인들이 잘 알아야겠고 또한 이곳의 형편들을 선교지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피차 기도할 수 있고 이해가 되고 참을 수 있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홍보활동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나 교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어떠한 일에도 순종하고, 결손하여 충성하지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마음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3~4년이 무척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지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조금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 저 개인적인 면에서는 당회장 김목사님께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저를 키워주신 것을 생각하면 늘 감사함이 앞섭니다. 또 김목사님 생활을 통해서도 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김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점 등은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고 저도 따라가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목회자로서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더욱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바쁜 일정으로 빠져져 있다. 섭섭한 마음으로 마지막 작별인사를 나눴다. 목사님은 부산으로 가족과 함께(이숙자 사모와 세 아들—삼열, 대열, 대웅) 떠나신다. 가시는 곳에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리자.

시편에서 주는

주간에 만나

시 51:7-12

회복의 은혜를 간구함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본문 7절 이하에서 여섯가지로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첫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문둥병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제사장으로부터 문둥병으로 확정 선언된 자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 나가게 됩니다. 문둥병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처음에는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사이에 병의 뿌리가 박히게 됩니다.
- 2) 문둥병은 고치기 힘든 난치의 병입니다.
- 3) 살이 썩고 나쁜 냄새를 풍깁니다.
- 4)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5) 필경엔 쫓겨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하나님의 특별한하신 은혜로 낫게 되면 먼저 제사장에게 보아서 병 나은 것이 확인되면 새 두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호르는 물위 질그릇안에서 잠게하고 다른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우슬초를 함께 가져다가 호르는 물위에서 잠은 새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번 뿌려 정하게 된 것을 선언하여 주었습니다. 그리하면 그후에 그는 진에 들어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레 14:4-8). 다윗은 자기를 용서하여 주시되 이처럼 우슬초로 정하여졌다고 선언하여 달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눈처럼 희게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죄로 인하여 뼈가 꺾어진 것같이 아픈 마음을 즐겁고 기쁜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세째 주께서 내죄를 보지 마시고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내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사탕으로 용서하여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네째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중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자이시오니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이시여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마시고 용서하시고 같이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든지 혹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면 그 이상 큰 심판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울왕이 계속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저를 떠나니 마지막에는 비참해졌습니다.

여섯째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영적자유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의 참 자유를 가진 자를 만들어 주옵소서.

시 52:1-3

악한 자의 중심과 죄

『강포한 자여 비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악한 자 강포한 자의 자랑은 악한 계획입니다. 그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인자가 의인을 영원까지 구원하실것을 모르고 자기의 묘한 계획은 폭로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줄로만 알아서 스스로 자랑하는 교만자이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은 자기의 묘한 계획을 스스로 칭찬하고 뽐내곤 하는 강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것을 물랐습니다. 악한 자의 혀는 심한 악을 꾀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악을 계획함이 아닙니다. 마음도 악하고 혀도 악하고 행동도 심히 악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날카로운 삭도같이 소리도 없이 간사를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심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그 혀는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리분과 저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선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권세·물질·명예에 재미가 있어서 의와 진실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시 52:6-9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의인은 더욱 깨닫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미혹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제물의 증부함을 의지하며』

의인은 악인의 득세하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악인이 멸절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공의로 우선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인이신 것을 실증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둘째로 악인이 뽐내는 것을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세째로 주를 의지하는 자의 행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동전에 심기를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감람나무는 상록수입니다. 잎이 좋고 키가 크고 열매가 좋고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감람나무는 시절을 따라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히 기쁨의 꽃이 만발하고 생명의 열매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네째로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인간의 세력, 꺾어질 인간의 권세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생에게 속한 것은 그 모든것이 다 잠긴이요 하루일이입니다. 잠만 있다가 없어지는 인개와 같은 것입니다. 인지하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시고 악한 자를 돌보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구역소식

축하합니다(10월중 결혼)

- 김남윤군과 차영애양/김화춘 집사 아들, 차병국 목사 딸, 2일 1시 본교회당에서
- 이정복군/이윤근 집사 윤영애 권사 아들, 2일 2시 평안교회당에서
- 한승일군/한명옥 장로 이봉재 권사 3남, 3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정종남군과 김문숙양/청년부 회원, 3일 2시 본교회당에서
- 조용준군과 김형순양/유년부 교사, 7일 2시 본교회당에서
- 이경철군과 김영양/제2성가대원, 14일 12시 30분 신혼예식장에서
- 김성혜양/반포구역, 10일 3시 퍼시픽호텔에서
- 최효일군/이정자 집사 3남, 16일 1시 본교회당에서
- 이병규군/정삼남씨 2남 20일 12시 서울예식장에서
- 박영식군/창동구역, 21일 1시 30분 종로예식장에서
- 배경미양/초등부 교사, 21일 11시 서울예식장에서
- 이강우군과 서윤명자양/마장구역, 새신자부교사, 23일 2시 본교회당에서
- 성만주군/강유점 집사 2남, 28일 12시 동원예식장에서
- 권명옥군/주교교사, 28일 1시 본교회당에서
- 홍민영양/박한이 권사 5녀 30일 12시 세종호텔에서
- 김택수군/황지영씨 장남, 24일 1시 기독교대학관에서
- 최정만군과 정숙희양/대학부 교사, 유년부 교사, 28일 2시 이대중앙당에서
- 홍민영양/홍주영 집사 동생, 30일 12시 세종호텔에서
- 김광옥군/박순옥 권사 2남, 31일 1시 세종호텔에서
- 이순영양/윤익열 집사 장녀, 11월 3일 3시 타워호텔에서

위로 드립니다(10월중 별세)

- 정준용씨/일경순집사 부군(면목구역), 45세 11일 별세
- 이순례씨/성남구역, 74세 12일 별세
- 김점순씨/이원용씨 부인, 30세 20일 별세
- 조신형씨/전일향집사 부군, 28일 별세

알립니다

12월과 명년 1,2월은 구역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번엔 실은 구역공과는 명년 3월에 사용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충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역장 노트 34

구역장특별수련 자료(1)

백성룡 목사
<부목사·권찰회장>

10월 25일 수요일기도회 후에 구역장들만의 수련회로 모여서 지구 담당 목사의 강의와 지시사항을 받은 다음 유년부실에 회합하여 특별기도회(철야)를 갖도록 했다.

1. 필 요

구역행정을 담당하는 구역장들이 모여서 철야기도회를 갖는다는 것은 먼저 위로 내리시는 신령한 은사에 영력을 더 얻어야 되겠다는 내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며 ① 구역원들의 신앙상태를 바로 파악지도 해야 할 요령을 터득하고 ② 권찰들과 긴밀히 연락하여 체제상의 결서를 확립하며 ③ 교회에 신속 정확한 보고를 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에 의한 것이다.

2. 내 용

(1) 구역원들의 신앙상태 파악과 지도요령

구역장은 구역원들의 신앙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 간접(교역자에게 보고하므로서)으로 지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역장들이 충분한 예비지식이 있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범위는 ① 새신자 지도와 안내 ② 신앙문답 준비지도 ③ 교회생활의 일반적인 상식(예: 헌금방법, 공집회 참석, 주교 입교 및 해당 지회에 가입, 교회안에서의 제반 활동 등) ④ 경조간에 봉사지도, 그밖에 생활상의 여러가지 문제들이다.

직접 지도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보고해서 교역자들로 하여금 지도하게 하여야 한다.

그릇된 교리상의 문제와 상벌과 신앙에 관한 일들과 전례가 없는 새로운 사건들은 교역자들로 취급하게 함이 옳은 것이다.

(2) 권찰들과 업무 연락관계

한주간에 한번 이상 꼭 연락을 갖도록 할 것이다. 전화 연락이나 혹은 직접 만나는 일은 자기 사정에 따라 할 것이지만 되도록이면 편의상 주일마다 교회당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도록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 그주간 심방한 권찰들을 체크하고 구역사정을 듣고 같이 기도하며 그자리에서 직접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기록에 남겼다가 월말보고서 작성의 자료를 삼는 일에 성의를 다하게 되겠기 때문이다.

이 모임과 연락사무는 구역장에게 있어서 구역원들을 지도할 내용을 얻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구 역 공 과

< 3월분① >

창세기 공부

제15과

국무총리가 된 요셉

본문 말씀/창세기 40~48장

읽을 말씀/창세기 41: 37-40

1. 꿈을 해몽하는 요셉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공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축복의 약속과는 반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형들의 배반, 보디발 아내의 모함, 억울한 투옥, 그러나 이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어디서나 자기의 위치를 지키었고 충성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축복하신 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인이었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노예가 되고 노예의 자리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고 죄수아닌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억울한 자리에서도 믿음 안에서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하던 어느날 요셉에게는 화가 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혀있던 의인을 들어내고 약속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굳게 지키는 자에게 상주시는 날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시었던 꿈을 이룩하셨습니다. 같은 감방에 갇혀있던 애굽왕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줌으로 이것이 2년후에 국무총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같은 사건은 물론 성도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것을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의 요셉의 고통을 모르고 계신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고생을 통해 요셉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서도 같이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두 관원이 꿈을 꾸고 그 뜻을 몰라 애달할 때 「나의 하나님의 힘으로 그 꿈을 해명하리라」고 하였습니다(창 40: 8). 하나님은 이같은 믿음을 가진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때에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어 성공하게 하시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꿈 해석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보다 요셉은 어떠한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요셉을 지키고 도와주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는 좋은 일을 당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돌아보고 제심을 알고 회개하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충성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날을 주십니다.

2. 국무총리가 된 요셉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며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내소서」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이 되었을 그는 요셉의 은혜를 잊어 버리고 있었읍니다. 2년이 지난 후 그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의 해몽을 얻지 못해 애달 그 때에 그는 과거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셉이 생각났읍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주인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였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으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요셉」을 그의 나라의 치리자로 삼았습니다. 자기는 왕의 자리 뿐, 모든 권한은 요셉에게 인계한다고 백성앞에 선언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큰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 주신 꿈 해석대로 7년 후에 온 천하가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에 만든 요셉의 「지혜의 정책」으로 양식이 풍부하였습니다. 굶주린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요셉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요셉을 팔던 그의 형제들도 있었읍니다. 요셉의 꿈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첫째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민에게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고(마 24: 35, 히 13: 7, 8) 또한 그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공하게 하십니다(시 37: 3-5).

둘째로 한 사람의 믿음의 축복이 자기 동족의 축복이 되고 나아가서 그가 처해 있는 이웃에게도 복이 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므로 그의 가족들이 흉년에 아사를 면했고 애굽국민들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디서나 이같은 복의 기관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창 12: 2, 3).

셋째로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태에서 갓 나온 밋덩어리 어린애와 같은(겔 16: 4-6)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유모에게 430년동안 맡기어 키우시기를 시작 하였습니다. 70명의 식구가 후에 장정만 60만의 대군을 이루어 한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이 다윗왕국을 건설하고 이 나라에서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작업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성공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트 의

1. 요셉의 꿈 해몽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인가, 목적인가?
2. 요셉의 믿음의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 3 월분 ② >

창세기 공부

제16과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요셉

본문 말씀/창세기 47~50장

읽을 말씀/창세기 50 : 15-21

1.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요셉의 생애

요셉은 그의 열 두 형제중 다른 형제보다 유독이 부친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보내어졌을 때(창 37:12~14) 그는 그의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에 종으로 팔렸을지나 그러나 그는 결국 애굽에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국무총리가 되어 자기 부친을 다시 만났고 자기의 동족은 물론 애굽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이같은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비슷하여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로 세상에 보내어진 것과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므로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것과 저를 통하여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신 사실들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예수님과 외형적으로 일치한 것은 오히려 그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온유·진실·충성이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성도의 생활이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이라면 요셉의 생애가 우리 모든 신앙인의 모본이 됩니다.

2.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요셉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5-8)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온유·절손이요(마 11:29), 사랑입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을 팔았고 그의 형제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답변은 온유·절손한 대답이었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인간은 누구도 정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요 내게 아무리 큰 손해를 끼친 자라도 그것을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이면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자리에 앉아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해 버리는 오만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책망과 권고를 있을 수 있으나 형제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계속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하며 오히려 저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것은 형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입에 발린 말도 아니요 진심으로 그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 하심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종신 하나님으로 보는 요셉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아가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뺨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하신 주님의 교훈과 부합하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하고 십자가 상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예수님의 관용한 마음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관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허물지고 연약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자녀가 되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형제의 파실에 용서하고 그를 돌지 않을 수 없는 줄 압니다.

3. 해골에 대한 유언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죽기전에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한 유언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처음 들어와 정착한 사람이었으며 언젠가는 자기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그의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틀림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의 모든 아름다운 인격의 바탕을 이루었고 축복의 기본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의 몸이 객지에 와 있고 늙어 죽을 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음을 믿고 그같은 유언을 하였습니다(히 11:13-16). 이같은 소망의 힘을 자기의 노력이 나 힘으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원한 땅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내용의 기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에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모든 아름다운 행실을 가지고 인내하며 묵묵히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토 의

1. 성도의 본 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생애의 중요 내용이 무엇인가?
2. 부활의 소망과 신앙 인격과의 관계를 말하시오(고전 15:29-34).

1979년도 각 기관장 임명

1. 당 회
회 장 : 김창인목사.
서 기 : 송순일장로, 부서기 : 이태규장로
2. 제 직 회
회 장 : 김창인목사, 회 계 : 최성립장로
사무부장 : 황기성장로, 영선부장 : 지금산장로
예전부장 : 마성락장로, 구제부장 : 김방진장로
봉사부장 : 이희연권사, 미화부장 : 이옥녀권사
3. 구역권활회 회 장 : 백성룡목사
4.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정상우목사
5. 성가부 부장 : 임광식장로
6. 전도위원회 및 해외복음선교회
전도위원장 : 최석주장로, 해외복음선교회장 : 위영환장로, 국내지도 : 이성복목사, 국외지도 : 김영회전도사
7. 성경학원
원장 : 김차생장로, 전담지도 : 이준교장로
8. 월간총현편집위원회
위원장 : 조현명장로, 지도 : 정상우목사
9. 기도원 관리위원장 : 이원철장로, 지도 : 한영철목사
10. 재정위원회 위원장 : 윤종성장로
11. 건축위원회 위원장 : 김기정장로
12. 인사위원회 위원장 : 김창인목사
13. 장학위원회 위원장 : 조현명장로
14. 등산관리위원회 위원장 : 정석배장로
15. 도서관 실장 : 이준교장로
16. 감사위원회
위원장 : 윤종순장로, 위원 : 오승률장로, 김창배장로, 이응선장로, 김영재장로
17. 주일학교
 - ① 어린이 세신자부
지도 : 김경선전도사,
부장 : 김은호장로, 부감 : 김원선집사, 명정옥집사
 - ② 장년 세신자부
지도 : 정상우목사, 부지도 : 구명선전도사
부장 : 김한홍장로, 부감 : 문홍구집사, 이명자집사
 - ③ 영아부
지도 : 정소영전도사, 부지도 : 이우선전도사
부장 : 김영재장로, 부감 : 정하우집사, 백옥인집사
 - ④ 유치부
지도 : 정연희전도사, 부지도 : 장선애전도사
부장 : 김익철장로, 부감 : 박치민집사, 이희수권사
 - ⑤ 유년부
지도 : 이양우전도사, 부지도 : 김양래전도사
부장 : 윤명식장로, 부감 : 강은원집사, 이정애집사
 - ⑥ 초등부
지도 : 김석원전도사, 부지도 : 안석렬전도사
부장 : 한경일장로, 부감 : 박승준집사, 이신일권사
 - ⑦ 중등부
지도 : 김남수전도사, 부지도 : 김정훈전도사, 김순옥전도사

- 부장 : 김종석장로, 부감 : 손동운집사, 문숙순집사
- ⑧ 고등부
지도 : 이승근장로, 부감 : 김광선집사, 이순녀권사
 - ⑨ 대학부
지도 : 윤형철장로, 부지도 : 김경선전도사
부장 : 윤용규장로, 부감 : 이춘식권사
 - ⑩ 산업전도교육부
부지도 : 김수성전도사, 김순애전도사
부장 : 오태희장로, 부감 : 최성현집사, 정선화권사
 - ⑪ 청년부
지도 : 이성복목사, 부지도 : 김연이전도사
부장 : 홍중섭장로, 부감 : 박재용집사, 손명순집사
 - ⑫ 장년부
지도 : 김중택목사,
부장 : 신영대장로, 부감 : 오진국집사, 김상권권사
 - ⑬ 노년부
지도 : 김재창목사, 부지도 : 박현모전도사
부장 : 박창수장로, 부감 : 교병옥장로, 김정옥권사
 - ⑭ 선교부
지도 : 김영회전도사
부장 : 위영환장로, 부감 : 남선우집사, 안윤진권사
 - ⑮ 새가정부
지도 : 윤영탁목사
부장 : 이동규장로, 부감 : 박성수집사, 안인현권사

기도원에 식재 단장을

기도원 관리위원회에서는 27일부터 30일까지 기도원 식재계획에 의해 식재를 하여 어느 정도 단장을 마쳤다. 이번 식재는 당회장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 숲으로 쌓인 기도원을 만들기 위해 주변지역에 4~5년생 잣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 푸르름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중요지점인 기도원 본당앞과 기숙사와 목사관 앞, 운동장 주위에 조경수목 및 녹음수를 식재하여 기도원을 단장했으며 명년이면 휴식처로서의 기능까지 담당케 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목사 새로 초빙

당회에서는(10월 30일) 늘어나는 업무와 양무리를 위해 부목사 한분을 모시게 되었다. 이번에 모시는 목사님은 청암교회 교육목사로 시무하시던 이성복목사(1946년 11월 1일생)이며 이목사님은 숭실대학 사학과를 거쳐 총신대 신학연구원을 졸업하시고 1973년 10월 17일 목사 안수를 받아 그동안 동산교회 서문교회 성도교회에서도 수교하셨던 목사님이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청년부 지도와 전도위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게 되었다.

연합 성가대의

토막소식

대외처녀출연

—제3회 성가합창제에—

본교회 연합성가대(대원: 183명)는 극동방송 주최, 한국교회음악협회와 아세아 방송이 공동 후원한 제3회 성가합창제(10월 31일 화요일 오후 7시)에 대외활동으로는 처음으로 출연하여 합창제가 열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무대위에서 첫 선을 보여 한국교회음악사와 총현교회 성가대 연혁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를 기록하였다.

이번 성가합창제는 1976년 극동방송 개국 2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시작되어 이번이 세번째의 연를 쌓은 행사였으나 본교회에서는 성가합창제에 처음 출연하였다. 또한 이번 합창제의 출연은 우리교회로서 성가대의 대외행사 참여의 새로운 장(場)을 만드는 초석(礎石)이 되었다는 점과 처녀출연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의 무대위에서 더우기 첫번째로 출연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였다는 점 등이 특기할 만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총 여덟교회가 출연한 이번 성가합창제는 그동안 1회, 2회는 류관순 기념관에서 가졌으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4000석이 넘는 대강당의 좌석을 메우고 서서 보는 관중까지 있었으며 성가 한곡이 끝날 때마다 감사와 은혜의 박수가 터져 나왔었다. 이번 성가합창제를 위해 본교회 당회장 목사님께서서는 물심양면으로 본교회 연합성가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었고 주최측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회 연합성가대는 지휘에 김종석 강도사 반주에는 조희영 선생이 맡았었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은 약 20일간의 해외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셨다.

*...교회에서는 11월 철야기도회를 10일 총현기도원에서 가졌다.

*...어린이 새신자부는 교사 철야기도회를 5일 기도원에서 가졌다.

*...장년 새신자부는 12일 학생 신앙강화를 이육균 선생님을 모시고 가졌으며 30일 기도원에서 교사기도회를 가졌다.

*...영아부에서는 5일 수료생 기념행사를 하였으며 23일 학부모 초청좌담회를 가졌다.

*...유치부는 12일 수료생 기념행사를 했으며 19일 추수감사절 특별행사를 가졌다.

*...유년부는 19일 고아원방문을 하며 26일에는 학부모초청 좌담회를 가졌다.

*...초등부는 5일 영락교회로 전학을 다녀 왔으며 12일 당회실에서 학부모 초청좌담회를 가졌으며 19일에는 춘곡발표를 하며 19일에는 고아원 방문을 가졌다.

*...중등부에서는 5일 학부모초청 좌담회를 가졌으며 12일 윤수길 전도사님을 모시고 '기독교학생의 미래'란 제목으로 특강을 가졌으며 19일에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성화강해를 가졌다.

*...고등부는 5일 정상우 목사님을 모시고 대학입시 예비교사 준비기도회를 6일에는 회원기도회를 12일에는 정기총회를 가졌으며 9~11일에는 원우연 목사님을 모시고 청소년초청 전도집회를 가졌다.

*...산업전도교육부는 19일 양로원 방문을 하며 22일에는 총현기도원에서 교사기도회를 가졌다.

*...대학부에서는 16일~19일까지 학생신앙강화를 갖는데 강사 및 주제는 정규오 목사님의 '기독교와 공산주의', 이만열 교수의 '크리스찬의 민족운동', 주영훈 박사의 '과학자가 본 우주창조'이며 17일에는 기도원에서 철야기도회를 가졌다.

*...청년부는 12일 현신에배를 26일에는 신사훈박사를 모시고 「통일교의 최근 동향」에 대한 특강을 가졌다.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

*1978.10.1 현재(매월 첫주 기준)

<집 회>

<헌 금>

구분	남	여	계	구분	남	여	계
예배	I부	244	443	687	주일	I	203,190
	II부	425	1,029	1,454		II	393,410
	III부	403	820	1,223		III	320,400
	IV부	142	244	386		IV	83,930
배	주일저녁	190	360	550	심일	조	6,645,825
	삼일	95	233	328		정	554,400
새신자	I	20	31	51	감사	일	31,000
	II	13	58	71		조	252,000
영아부		110	122	232	건축		4,673,861
		122	116	238		동산	112,000
유치부		159	158	317	특별		180,000
		168	167	335		새신자	3,260
초등부		162	156	318	영아부		69,435
		148	134	282	유치		42,920
중등부		57	83	140		유년	38,110
		64	58	122	초등		31,370
고등부		24	252	276		중등	45,478
		29	76	105	고등		50,215
장년부		24	86	110		대학	56,040
		24	86	110	계		14,450,844
산업교육부		24	86	110			
계	2,599	4,626	7,225				

□ 신급별 교인통계 □

남/여

총세대수	교인총수	세례교인	유세	학습	원입
2,954	2,742/4,082	1,482/2,711	412/319	273/347	575/705

마침내

보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 설교집 제 1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충현교회 출판위원회 편 크라운판 80모조 400면

고급양장 값 3,500원

반 양 장 값 3,000원

총판/정음서림 (776-7897)



한국교회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기다리던, 김창인 목사가 힘있게 외친 서른 일곱편의 설교가 우선 한권의 책으로 지난 주 출간함으로써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에게 이 설교집은 지금 막 강단에서 흘러 나오는 은혜있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정에 한 권씩 구입합시다. 친구·친척·친지 또 해외에 계신 성도들에게 성탄선물로 보냅니다.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 목회에 승리를 거두고 계신 김창인 목사의 설교집이 우리 교계에 나오게 됨은 기쁜 일입니다. 이 책이 영어로 번역되어 그분이 전도여행을 다녀온 세계 각국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애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경신학자 박윤선 목사>

■ 대중적이면서도 평이한, 김창인 목사의 설교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늘 역사하였습니다. 그 설교들이 이제 그분이 강단에서 외친 그대로 꾸밈이 없이 문서화되어 나오게 됨은 우리 교계에 참으로 큰 수확이라고 봅니다.

<충신대학장 김희보 목사>

편집하고 나서

*...어느덧 78년도 끝나가고 있다. 늘하는 계획과 또 시행착오 그리고 후회들로 점철이 되었던 한 해가 아니었는지 모른다. 그동안 이모양 저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월간충현이 계속됨을 꼭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성원들로 큰 힘을 얻었다.

*...79년도를 문턱에 놓고 우선 내년도 인사에 관한 각부서 기관장을 발표한다. 보다 새로운 각으로 새해를 맞는 바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다. 김희보 목사님이 청년부에서 하신 특강을 간추려 소개한 「성도

의 결혼관」 김차생 장로님의 「세속주의 비판」의 글들, 윤형철 강도사님의 「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등의 글로 11월호를 내놓는다.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한다. 특별히 추수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달이다. 그러나 어찌 풍년을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할 것인가 우리의 모든 순간, 시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감사주일을 맞으며 모두가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 1978년 월간충현 조직 □

충현출판위원회

월간충현분과장/조현명

서기/조선근 회계/배옥인

분과위원/정상우 이준교 김차생

윤형철 박성수 정은표

이형수 오태용 고계원

이사례

주간/이준교 편집국장/이형수

간사/오태용 고계원

기자/성주진 정윤명 유미숙

홍지향 김인숙

월간충현

11월호

제 6권 통권 제59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8년 11월 19일 발행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조 현 명

주 간/이 준 교

편집국장/이 형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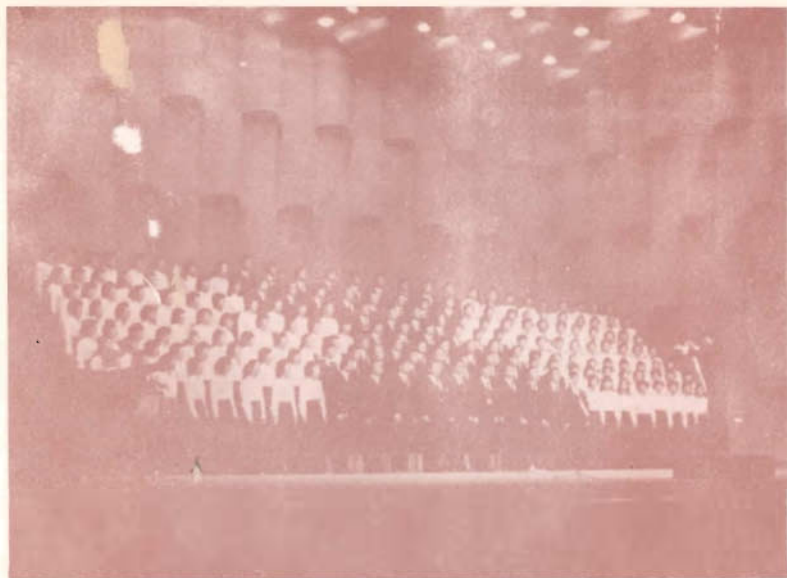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7-9937·9738

269-7726(편집실)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극동방송 주최 제 3 회 성가합창제가 지난 10월 3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있었다. (본교회 성가대의 모습)



교육위원회에서는 제 1 회 교사단기훈련 (10/19~21)을 이순한 목사(용산남부교회시무)를 모시고 가졌다.



유치부에서는 지난달 15일에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유치부실에서 가졌다.



중등부는 제 5 회 작은음악회를 본당에서 10월 28일에 가졌다. (지휘:이한승선생)



고등부에서는 대학입학예비고사를 위한 준비기도회를 11월 5일 유년부실에서 정상우 목사를 모시고 가졌다.



감 사

——주부의 기도——

마음에 오래 그리던 일, 날마다 땀값고 청소하고 먼지 털고 닦고 하는 이 모든 소원을 흠족케 할 가정을 내게 주신 데 대해 아버지께 감사하나이다.

내가 자주 피로하나, 그러나 만족한 마음으로 쉬고 밤이면 부드러운 팔과 같은 잠 속에 내맡기는 그 모든 할 일 속에서 내가 얻은 사랑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하나이다.

이 나의 가정—— 지상에서 최후의 피난처에 주님이 계심을 아버지께 감사하나이다.

리더오 오 켄슨

실로암
못가에서